현불 논단

# 잊혀진다는 건 쓸쓸하다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부모님 연로해 증조부묘 납골키로**
**속가 형제와 선산 · 토지 처분 결정**
**자랐던 고향의 흔적 사라짐 '섭섭'**

**〈열반경〉 자주 나오는 '靈地' 용어**
**부처님, 영지에 주로 머물며 포교**

**영지는 고향이자 역사이며 집이다**
**아파트가 고향이 되어버린 시대에**
**다음세대는 어떤 영지서 번영할까**

올해 초에 조상님의 납골 관계로 작은 형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산소를 오르는 산길이 거칠고 험해서 앞으로는 증조부모님의 묘를 돌보기 어려우니 화장을 해서 납골로 모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시골의 산과 토지들도 처분 가능한 것은 처분해서 정리하도록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하였다.

마음 한 편으로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나고 자라온 고향의 흔적들이 사라져가는구나' 라는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적지 않았지만, 현실은 또한 현실인 것. 가족들 중에 누가 고향으로 돌아가 살면서 지킬 사람도 없고 맡길 사람조차도 없는 상황이 직면한 현실인 것이다.

몇 년 전 인근에서 상당한 부농이었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대를 이어 내려온 가문이며 농지와 주택, 조상의 묘소들이 있었다. 자녀들은 다들 총명해서 대학 공부를 마쳤고 외지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남겨진 부인은 치매로 시골에서 혼자 살 수가 없었다. 그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했고, 결국 어머니를 자녀들 중 한 명이 모시기로 하고, 그 토지와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나누기로 하였다. 지역에서 제법 단단한 기반을 가졌던 한 가문이 한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들과 그들 자녀들에게 토지와 역사로 전승되어 온 조상과 고향은 기억에서조차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열반경〉을 읽다보면 '영지(靈地)'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밧지족의 영지, 베살리의 영지들, 보가나가라의 영지 등 부처님께서는 영지에서 주로 머물며 지내신다. 부처님께서 거쳐 가는 마을 이름들도 여러 곳이 나열된다. 베살리, 반다 마을, 핫티 마을, 암바 마을, 잠부 마을, 보가 나가라 등 당신이 이전에 지내셨던 기억들과 마지막 발길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있다.

**'아난다여! 베살리 마을은 좋은 곳이다. 우데나 영지는 좋은 곳이다. 고타마카 영지는 좋은 곳이다. 삿탄바 영지는 좋은 곳이다.'**

영지는 신불(神佛)의 영검이 있는 신령스러운 땅이라는 뜻이다.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조상신과 토지신, 산신 등의 신령과 불보살님과 같은 성현들께서 머물고 지내신 땅이 바로 영지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영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

**"아난다여! 그와 같이 밧지 족이 그들의 성 안팎에 있는 밧지 족의 영지를 경애, 존중, 숭배하고 공양하며, 아끼고 봉납 드리는 적합한 제식을 폐지하지 않는 동안에는, 아난다여! 밧지족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니라."**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지나치셨던 그 마을과 영지의 이름들이 아직도 분명하고 〈열반경〉을 읽는 불자들의 가슴에 선명한 영상으로 떠오른다. 영지는 고향이다. 조상의 혼이 서려있고 그 역사가 녹아있는 마을이며, 토지이며, 무덤이며, 집이다.

우리 세대까지는 아쉽지만 조상이 살아온 마을이름과 토지를 지켰으며 그 조상의 역사와 흔적을 안고 살아왔다. 그 힘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음세대는 어떠할까! 산부인과를 고향으로 알고 아파트 동과 호를 마을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어떤 영지에 의지해서 쇠망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을까?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 환자가 준 목탁과 요령

내가 사용하는 요령과 목탁은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신 한 보살님의 사연을 담고 있다. 한 병실에서 불자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반갑게 불렀다. 뒤를 돌아보니 환자분이었다. "저도 불자입니다. 스님"하며 합장한다. 나는 잠깐 '내가 불자 환자 명단을 잘못 보았나보다' 하는 생각에 당황하며 "아 그래요? 불자인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라고 합장하며 다가갔다. 불자님은 신심있게 다니던 사찰의 이야기를 하며 기뻐하였다. 그렇게 잠시 얘기한 후 관세음보살 정근도 한 후 기도로써 마무리 하고 돌아왔다.

다음날 다시 봉사자실에 들러 환자명단을 열람하는데 그 환우분의 종교가 기독교로 표기 되어 있었다. '아 뭔가 착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환자분이 계신 병실로 갔다. 환자분은 반기는 빛이 역력하면서도 전 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옆에는 보살님과 많이 닮은 따님이 있었다. 나를 보지도 않았다. 보살님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몸은 어떠신가 안부를 묻다가 명단에 종교가 잘못 표기되어있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마자 옆에 앉아 있던 따님이 차갑게 "개종했어요"라고 말하는데 몹시 당황스러웠다. 환자분의 표정이 삽시간에 일그러지며 아무



그림 · 최주현

말이 없었다. 어떤 말을 붙이기도 참 어려운 분위기였다.

병실을 방문하며 기도한 물이라고 감로수 물을 가져다 드리면 너무 좋아했다. 따님도 처음보다는 많이 친절해졌고 가끔 절에서 가져온 떡을 주면 고맙게 받기도 하였다. 보살님은 아들과 큰 딸, 작은 딸이 있었는데 몸이 아픈 뒤로 작은 딸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아들에게까지도 작은 딸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상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분의 상태가 조금씩 어려워졌다. 그런 어느 날 병실을 방문했을 때, 환자분이 나를 불렀다. 목탁과 요령이 든 주머니를 내게 건네며 "스님, 제가 이제 부처님과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딸의 소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힘없이 말하였다. 나는 고동색 주머니를 받아들고 무어라 말을 해야 할 지 머릿속 생각을 뒤적이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환자분의 앞 병상 불자 환자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침 목사님이 들어왔고 환자분에게 기도를 시작하였다. 문득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환자분의 시선은 앞 병상의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나에게 와 있었다. 목사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저 입을 크게 벌려 활짝 웃어드린 후 법당으로 내려왔다. 부처님을 뵙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며칠 후 환자분의 임종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그에게서 받은 목탁과 요령을 사용하여 임종하는 불자들을 배웅한다. 그들이 외롭지 않게 부처님께 편안히 돌아가시길 기원하며 정성껏 '나무아미타불' 염불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 불교 중흥 밑거름 '자비순례'

10월 7일 새로운 만행결사가 시작됐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후 태화산 예비순례를 거치며 결사대중들은 결사정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도 부처님 성지에서 진행될 만행결사를 대신하여 자비순례를 진행한 것이다.

2019년 11월 시작된 아홉 스님들의 무문관 정진은 풍찬노숙 속에서의 구도열이란 점에서 불자대중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난 2020년 10월 이젠 대중들의 풍찬노숙으로 이어지고 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에서 대중들은 텐트와 도시락 등 길 위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전법한 부처님의 전법만행을 그대로 따르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스님들이 대가사를 수하는 여법함을 보임은 물론이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순례 중에는 묵언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소독과 발열 점검 등도 철저히 진행한다.

한국불교사에서 그동안 수많은 결사가 있었지만 함께 길 위에서 사부대중이 전법과 만행을 한 결사는 이례적이다. 21일간 이들이 걷는 500km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한국불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동안거 정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인도만행결사를 대비해 열렸던 태화산 예비순례는 걷기 수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번 국난극복 불교중흥 자비순례는 불교 순례가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순례단이 노숙을 할 10월의 날씨는 춥다. 10월 27일 봉은사에서 결사대중들의 원만회향과 함께 한국불교 대중흥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 비대면 시대 '공모전'으로 포교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포교전략으로 공모전이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전이야말로 요즘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행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공모전은 주제와 분야에 맞는 작품을 규격에 맞게 각자 준비해 발송하는 형태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당선자나 수상자 발표도 온라인과 연락망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전에서 유일한 대면 행사는 시상식 정도인데, 이 역시 온라인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찰과 불교계 단체들이 그동안 지속해 왔던 수많은 행사가 취소됐지만 공모전 만큼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다.

공모전이 가진 장점도 많다. 대면행사가 장소 마련부터 참석자 모집,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 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이 큰데 비해 공모전은 상금 규모에 따른 예산과 최소한의 실무자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기대효과는 크다. 우선 공모전 주제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장소에 메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전 요강을 살피는 과정에서 주최 단체나 사찰의 특성과 이름을 자연스레 인지하게 돼 홍보효과도 적지 않다.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지도가 쌓이면 참가자가 많아지고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대면 행사처럼 한 곳에 모여 직접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는 효과는 다소 약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개인적이고 혼자만의 시간에 몰두하는 요즘 세대에는 더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모전이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보다, 대중과 더 폭넓고 간편하게 소통하는 또 하나의 포교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韓國佛教 太古宗
총무원장 호 명
종 도 일 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TEL 02)739-3450 FAX 02)739-3470

